

# 항공·우주 중심도시 실현 의지 다져

황인홍 무주군수, 항공우주산업 통한 무주군 미래 100년 청사진 공유

무주군 공직자들이 3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접 발제에 나선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주산업이 미래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임을 강조하며 항공우주산업을 통한 무주군의 미래 100년 청사진을 공유했다.

무주군은 현대로템(주)의 3,000억 원 규모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며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의 중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현대로템(주)의 산업단지 조성 및 생산시설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기반시설, 투자지원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반 시설 확충, 연계 기업 유치, 연구개발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우주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무주군 공직자들이 3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도약의 기회를 잡은 만큼 반드시 살려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실행력”이라며 “무주를 중심으로 행정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 중심도시로 우뚝 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0억 원과 현대로템 항공우주 산업단지 조성을 토대로 진입도로 등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대전권 연구

개발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무주에서 우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해 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로템 항공우주 민간 산업단지 조성(3,034억 원)을 포함한 3,488억여 원 규모의 무주군 항공우주 종합생산지구 구축 사업은 오는 2034년까지 추진되며, 군은 지난 3월 현대로템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 주민소통·문화복지거점공간조성

장수군, 평지마을만들기 사업 ‘행복 나눔방’ 준공식 개최

장수군은 계남면 평지마을에서 ‘평지마을 행복 나눔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정우 장수부군수, 문재표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환영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행복 나눔방을 둘러보며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계남면 평지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202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평지 행복 나눔방은 연면적 98.24㎡(약 29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난해 8월 착공해 올해 4월 준공됐으며, 다목적실과 주방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히 주민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이 평지마을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물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무주군, 고품질 프리미엄 흑미수박 출하 한창

무주군 대표 특산물인 고랭지 흑미수박 출하가 한창인 가운데, 무주군이 고품질 생산 기반 강화와 가격안정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안성면 무주농협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하루 100여 톤의 흑미수박이 수매·선별·출하되고 있다.

흑미수박은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무주군의 대표 소득작목으로, 일반 수박보다 껍질이 얇고 색이 짙으며 당도가 높아 전국 소비자들과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설천면과 안성면 지역 90여 농가가 연간 3천여 톤의 흑미수박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3일 무주농협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해 흑미수박 수매와 선별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재배 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과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나눴다. /무주=손흥기 기자

# 제2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사진 공모전’ 개최

장수군은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2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개최를 기념해 역대 축제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추억의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진전은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해 온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의 지난 20년을 군민과 관광객의 사진으로 함께 돌아보고, 축제의 발자취를 기록·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제1회부터 제19회까지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행사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축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장수군이 오는 11월 28일까지 군의 모든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주민등록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9월 7일까지는 ‘정부위’ 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실시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의 대표자 1명이 앱에 접속해 세대원 전체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미입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8월 물놀이 안전관리 집중기간 운영

진안군이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어린이 놀이 시설과 주요 물놀이 지역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8월은 연중 물놀이 피서객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군은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수영 금지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계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대한민국 최초 그랑프리 시리즈 열린다

G-6 등급 ‘무주 태권도원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G-6 등급의 ‘그랑프리 시리즈’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세계 최정상급 태권도 선수 뜻과 대회 운영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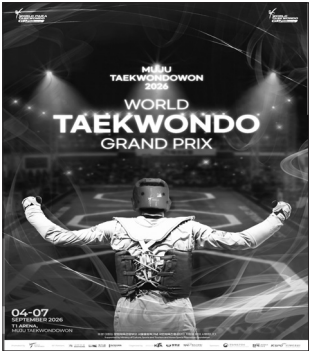
그랑프리 시리즈는 9월 4일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파라태권도 그랑프리’와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로 2개 대회가 연이어 펼쳐지는 최고 권위의 국제 태권도 이벤트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태권도 국

제 대회가 한 무대에서 연속으로 개최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높이고,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통합형 국제 스포츠 행사로서의 의미가 크다.

9월 4일 ‘세계파라태권도 그랑프리’에는 28개국에서 2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8명의 한국 선수를 포함해 패럴림픽 체급별 상위권 선수들이 겨루기 남녀 5체급(K44 등급)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정상을 다툰다.

5일부터 펼쳐지는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에는 50개국, 445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대한민국 24명 선수를 비롯해 올림픽 랭킹 최상위권 선수들이 남녀 올림픽 4체급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 진안군, 친환경 미생물 연중 무상 공급

진안군은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6종을 연중 무상으로 제공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관수 작업 시 물에 미생물을 희석해 함께 주는 방식이 효과

적이다. 작물의 생육을 북돋우는 동시에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한계반에 많이 주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꾸준히 관주하는 방식이 미생물의 정착과 효과 지속에 유리하다.

미생물 공급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축산인·영농법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농번기(3~10월)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